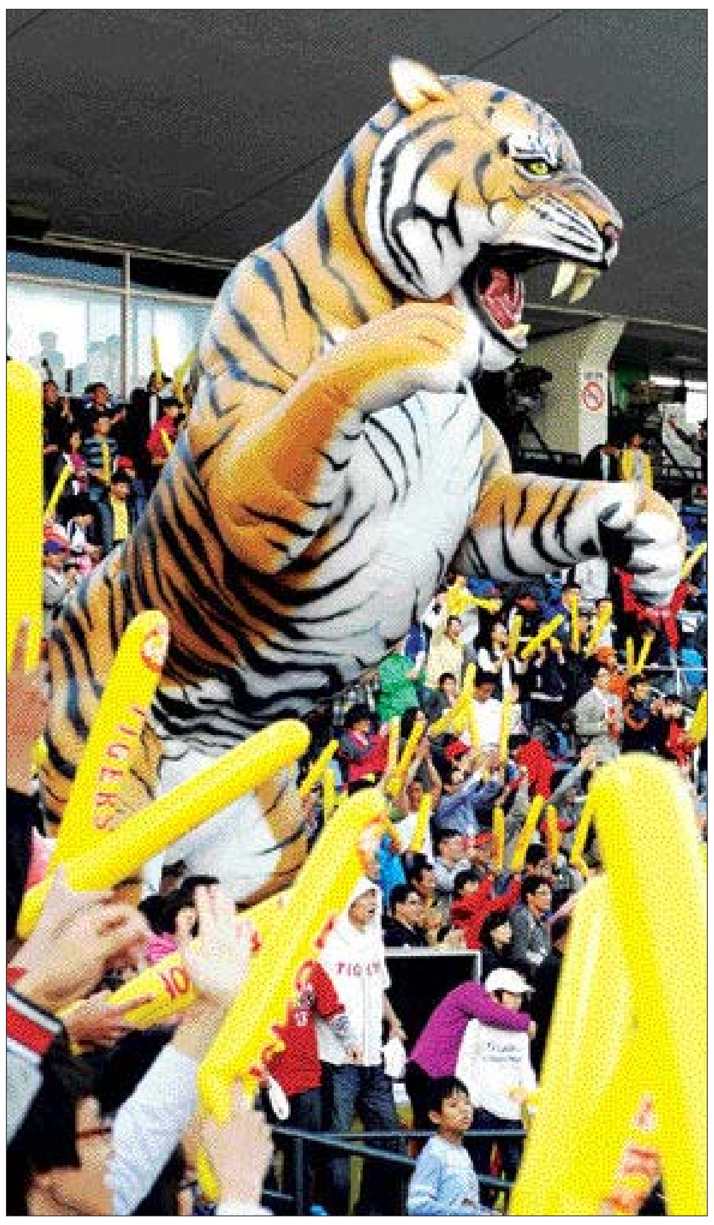
이렇게 좋을수가 16·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열렸다. 12년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경기를 보기 위해 찾은 관중들로 이틀 연속 만원 사례를 이룬 무등경기장은 KIA의 우승을 기원하는 팬들의 함성과 아낌없는 응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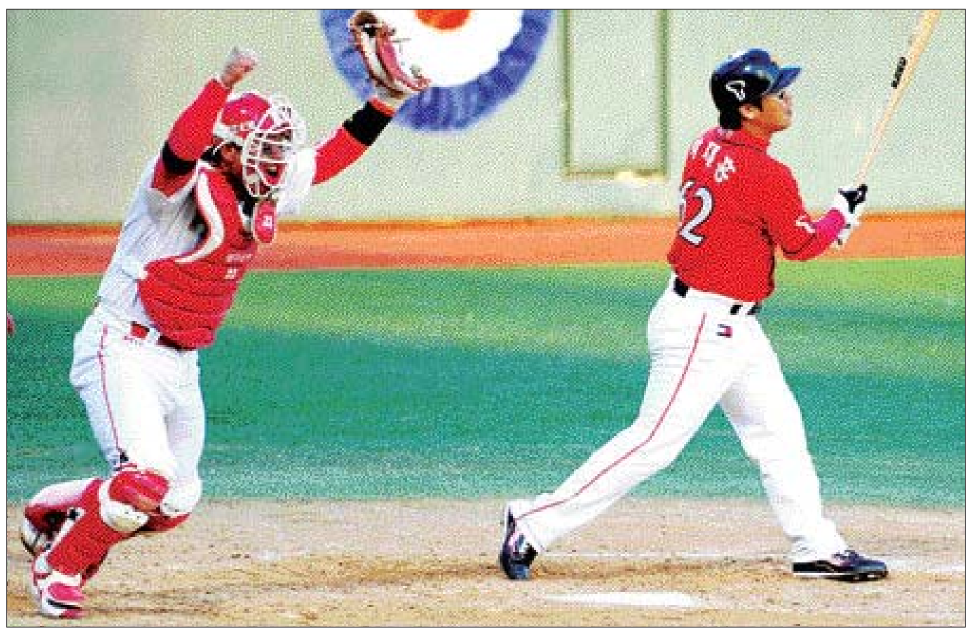
12년만의 노란 함성
황홀한 광주의 가을

사진=위직량·최현배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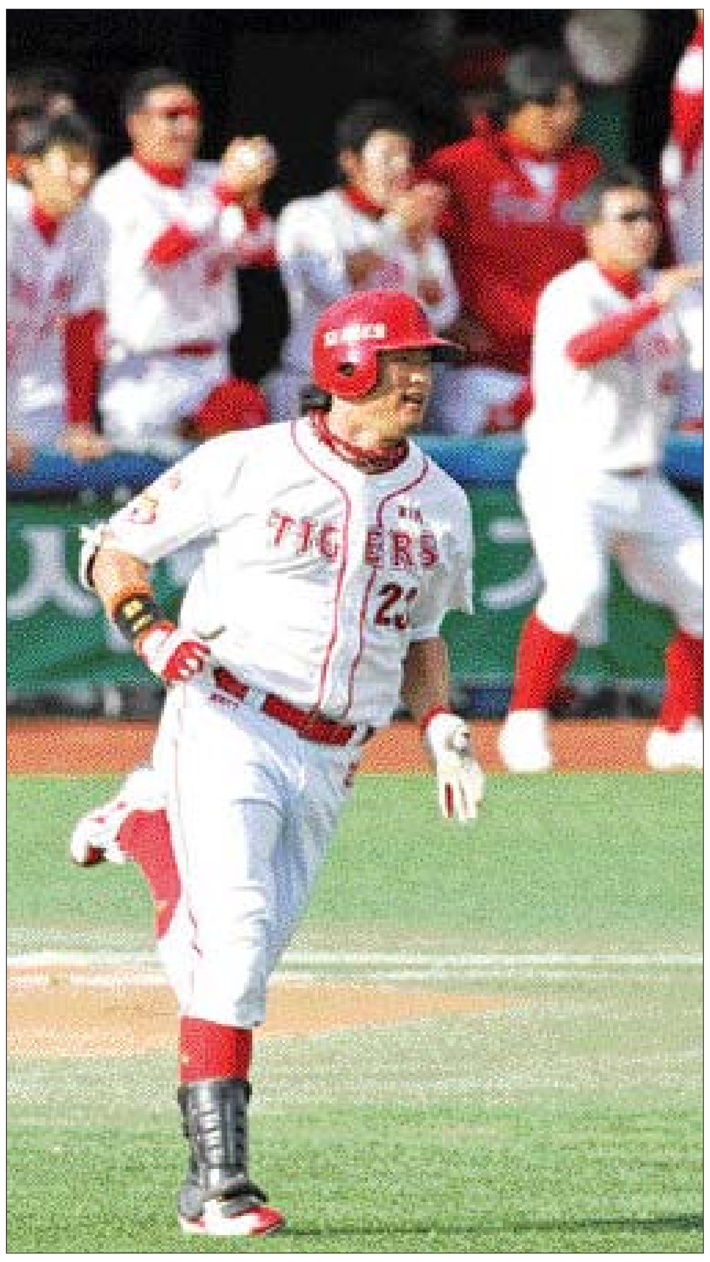
종범이 삼촌 파이팅! 여성팬들이 '불혹의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이종범의 선전을 기원하며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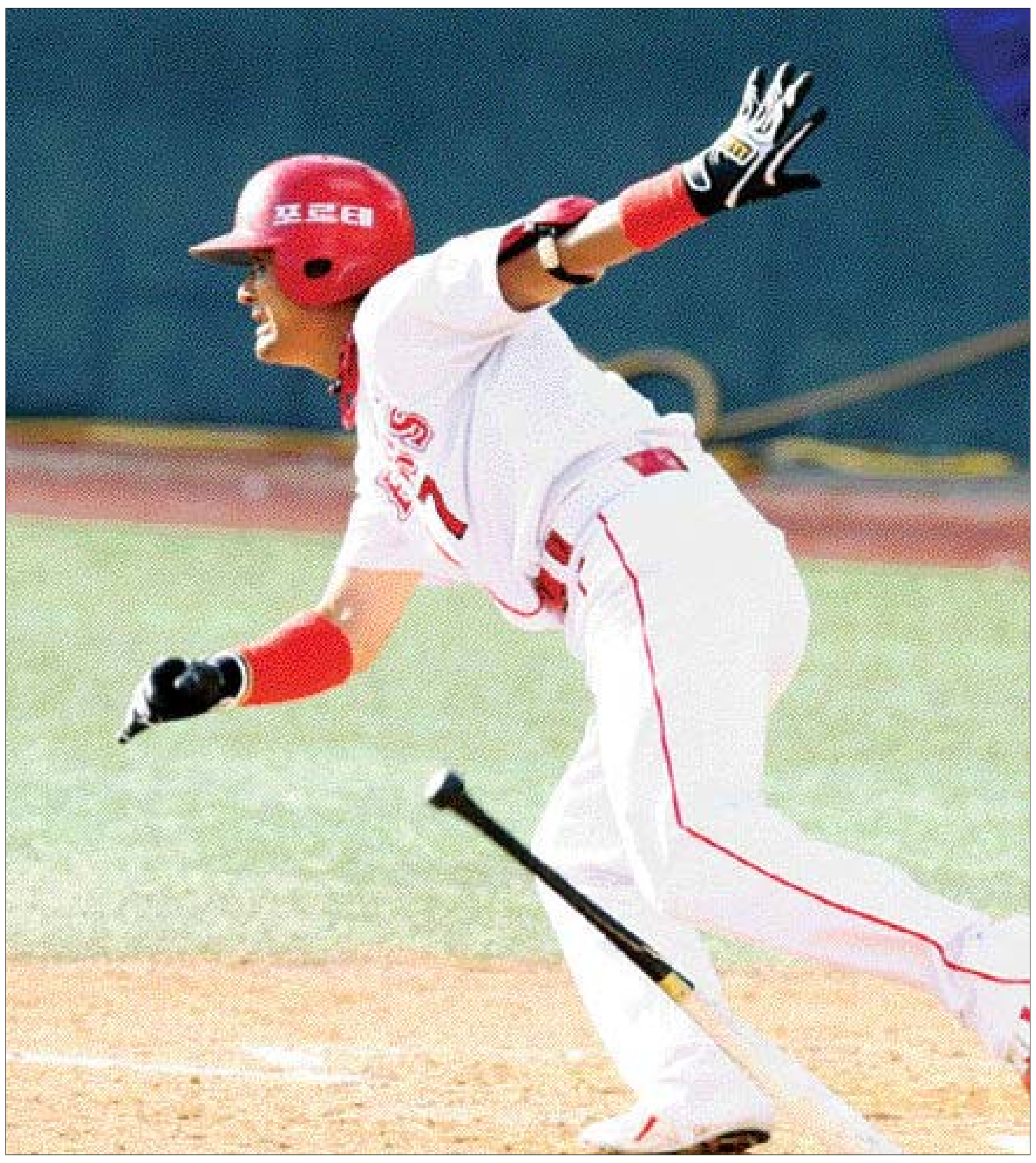
호랑이 포효 KIA 타이거즈에서 2천여만원을 들여 제작한 응원용 대형 호랑이 풍선이 관중들과 함께 어우러져 마치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



이겼다! 17일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KIA 포수 김상훈(왼쪽)이 9회초 SK 박재홍을 삼진으로 잡아 승리를 확정지은 뒤 두 손을 들어 환호를 하고 있다.



2차전 히어로 17일 한국시리즈 2차전 4회말 KIA 공격에서 2사 1루때 최희섭이 선취 득점을 뽑아내는 적시타를 치고 2루까지 달리고 있다.



1차전 히어로 한국시리즈 1차전 승리의 주역 이종범이 2차전 5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내야 안타를 치고 있다.

'외국인 호랑이' 초가을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외국인이 반팔차림의 KIA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고 있다.